

새겨진 이름

출 39:1-21

2021년 10월 28일(목)

1.

오늘 본문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성막의 휘장과 동일한 재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만듭니다.

1절을 보면,

제사장의 옷을 일컬어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이요, “거룩한 옷”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옷은 아무 때나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만 입을 수 있는 옷이요,

그 옷은 정성스럽게 정교하게 지은 옷이요, 거룩하게 구별된 옷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제사장의 옷을 반드시 입어야만 했습니다.

만일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다른 옷을 입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향로가 아닌 다른 향로를 들었던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민 16장).

하나님이 정하신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해서 향로에 향불을 밝힌 나답과 아비후도 죽음을 당했습니다(레위기 10장).

그러니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의 복장을 입지 않고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갈 3:27,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만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처럼,

만인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 복장이 아닌 다른 옷을 입고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은 곧 죽음을 의미한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의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롬 13:14,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모두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살 수 있습니다.

2.

2-7절까지는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봇'은 '제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에봇에는 에봇을 매는 띠와 어깨 받이, 그리고 흉패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깨받이를 살펴 봅시다.

어깨받이는 에봇의 양쪽 어깨에 붙이는 견장 같은 것인데,

그 어깨받이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라는 보석을 달았습니다.

6-7절입니다.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 테에 물려 도장을 새김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받이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호마노라는 두 개의 보석에 각각 여섯 개의 이스라엘 지파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마노 보석을 에봇의 어깨받이에 달았습니다.

이 호마노를 일컬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념하다'라는 단어는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실 때,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호마노에 새겨진 '열두 지파의 이름을 기억하시겠다'는 의미요,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3.

8-21절까지는 에봇의 가슴에 붙일 '흉패'에 대한 말씀입니다.

흉패는 길이와 너비가 각각 한 뼘씩,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흉패에는 모두 열두 개의 보석을 달았습니다.

한 줄에 세 개씩, 모두 네 줄에 총 열두 개의 보석입니다.

이 보석들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열두 개의 보석이 모두 종류가 다릅니다.

또 하나는 열두 개의 보석에는 각기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새겼습니다.

14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김 같이 그 열두 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대제사장의 제복(에봇)은 어깨받이에 부착한 호마노 보석에도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데,

에봇의 가슴에 부착한 흉패의 열두 보석에도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강조하실 때는 반복하십니다.

대제사장의 에봇의 어깨받이에, 흉패에도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들을 부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15-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제 외할머니는 치매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치매가 너무 심해서 자식들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느 여인이 자기 자식의 이름을 잊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치매라는 질병 때문에 자식의 이름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호마노 보석에도 열두 지파의 이름을 새겨 놓으시고,

흉패에 달린 열두 보석에도 열두 지파의 이름을 새겨 놓으신 것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어깨받이와 흉패에 이스라엘의 열두 이름이 새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그런 내 마음에 새겨질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오직 ‘예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이 외에도 흉패 안에는 재판할 때 사용하는 우림과 둠뭇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뭇은, 옳고 그름을 재판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그래서 흉패를 일컬어 ‘판결의 흉패’라고도 부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을 만들었고, 어깨받이를 만들었고, 호마노 보석에 열두 지파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또한 흉패를 만들었습니다. 흉패에 부착할 열두 보석에 각기 열두 지파의 이름을 또 새겼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5절하,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7절하,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1절하,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1절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더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21절에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는 말씀으로 끝이 났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들이 됩시다.

내 이름을 새겨 놓으시고 나를 언제나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내 마음에 오직 ‘예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이름을 마음에 새기는 자들이 됩시다.